

저자 (Authors)	박근영, 권대원 Park, Keun-Young, Kweon, Dae-Weon
출처 (Source)	한국영유아보육학 125 , 2020.11, 45-68 (24 page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25 , 2020.11, 45-68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영유아보육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482426
APA Style	박근영, 권대원 (2020).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5, 45-6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4 14:0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 연구

박근영* · 권대원**

[요약]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삼국유사의 내용은 총체적 문화유산의 원천적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역사, 지리, 문학, 종교, 언어, 민속, 사상, 미술, 고고학 등 다양한 영역을 두루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활용 방법에 따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서로 다른 요구들을 충족하고 이로써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학습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삼국유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의 선정 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행연구 및 문헌을 살펴본 후 항목을 정리하고 예비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를 유아교육 및 교육학, 역사학 관련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에 따라 삼국유사를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삼국유사에는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보편적 가치와 태도,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과 참여 방법 등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삼국유사를 세계시민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유아가 세계시민의식을 갖추고 행동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삼국유사, 삼국유사 설화, 유아 세계시민교육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I. 서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태어나서 영아기까지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아기에는 첫 사회로의 발돋움 하며 또래,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를 거쳐 성인이 되면서 인간은 가족, 친구, 이웃, 사회와 관련된 관계 속에서 성숙해간다. 브론펜브러너는 인간은 직접적인 환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의 환경 체계 즉, 미시체계, 중간 체계, 이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한다. 즉, 인간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체계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가치, 태도, 신념, 과거와 미래 등 모든 환경과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현대에 이르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한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적 공간을 뛰어넘어 세계의 문화와 문화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제도, 전통, 신념, 가치 체계 등과의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국가 내의 환경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인 관점에서 세계 속의 ‘개인’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세계시민성을 갖춘 세계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계획과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김정숙, 2018: 3). 이와 더불어 교육부(2015: 14, 15)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인류 보편의 평화, 인권, 다양성 등에 대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하면서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세계 속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기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유치원 개정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도 타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중시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국제적 소양과 역량을 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 이는 현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에서부터 세계시민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시작되는 발달적 시기에 해당하므로(유향선,

2013) 성별, 인종, 장애, 계층, 차이를 극복하는 평등교육을 실시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적합한 시기(박은혜·신은수, 2012; 유연옥·박인숙, 2014; Collins, 2012)이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이 가능하며 유아기에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김경은, 이나라(2012)는 사회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고, 김종훈(2018)은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세계시민교육 방안에 대해 탐색하였다. 장동일(2017)은 ‘신문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밝혔으며 허영선(202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세계시민교육 내용의 학습 요소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평가하여 차기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하나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며 이미 축적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주는 교수방법을 지칭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UNESCO, 2015: 19).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와 학습 환경에 맞게 교육 자료와 매체를 선정하고 교육 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더욱더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삼국유사의 내용은 총체적 문화유산의 원천적 보고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역사, 지리, 문학, 종교, 언어, 민속, 사상, 미술, 고고학 등 다양한 영역을 두루 다루고 있기 때문에(네이버지식백과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활용 방법에 따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서로 다른 요구들을 충족하고 이로써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학습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삼국유사는 다양한 설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설화는 비교문화적인 학습방법으로 언어와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김정선 2018: 11).

신창호 외(2011: 76)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시가와 배경 설화는 인류의 역사나 문화와 궤적을 같이 하는 삶의 근원적 현상을 담은 설화 자체가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조지훈(1994; 신창호 외, 2011: 76)의 연구에서는 전설, 신화 등이 담긴 문헌을 통해 인간들의 심리와 민족적 사고방식의 원형을 엿볼 수 있고, 사회적 구조와 문화권의 접촉 및 그 유연성을 찾을 수 있으며, 한 민족의 역사적 풍토와 민족

문화의 성격 내지 이념의 원형과 방향을 추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역사를 다룬 인간 삶의 이야기가 세계시민의식과 역량 발달에 유의미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삼국유사 설화는 문학 교육의 자료로서 다양한 연령의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최민정(2010)은 초등교육에서 삼국유사 설화의 현재화 양상을 분석하고 개선 및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학습자가 역사적 이야기로의 상상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고 주변 세계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으며 민족 고유의 정체성 확립이 가능해지는 효과 또한 누릴 수 있어 다양한 삼국유사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일(2019)은 고등교육에서 삼국유사 설화를 미술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삼국유사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설화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도록 도와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비교적 최근에는 유아를 위한 교육 자료로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있다. 김기정 외(2018)의 연구는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놀이 중 인지 놀이 유형을 분석하여 유아의 발달에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김정선 외(2018)의 연구에서는 삼국유사 설화를 활용하여 유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정선 외(2017)는 삼국유사 설화를 가지고 유아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삼국유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의 선정 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삼국유사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학습자의 문학 교육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유아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본 연구가 4차 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세계시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삼국유사를 선별하여 교육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된다면 유아의 세계시민의식과 역량을 발달시키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선정 기준에 따라 분석된 삼국유사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설화는 삼국유사에 담긴 모든 교육적 내용을 분석하여 실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일부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설화로서 대표성을 지니며 다양한 존재, 문화를 다루어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도출된 12편의 설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설화에 대한 개요를 정리한 다음, 전문가 5인(유아교육과 교수 1인, 유아교육 강사 1인, 교육학 강사 2인, 역사교육 전문가 1인)에게 제시하여 유아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을 구하였다. 선정된 삼국유사 설화의 종류와 연구자가 정리한 개요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설화

구분	삼국유사 설화	개요 정리
제1 기이편	고조선	곰이 썩과 마늘 20개를 먹으며 빛을 보지 않고 21일을 견디어 사람이 되었다.
	신라시조 혁거세왕	임금이 없던 나라에 알을 깨고 태어난 사내아이가 왕이 된다. 그 왕은 혁거세이며 왕후 또한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귀이 한 존재이다.
	도화녀와 비형랑	도화녀를 사랑한 진지왕은 죽어서 도화녀를 찾아갔고 도화녀는 진지왕을 받아주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
	선덕왕이 미리 알았던 세 가지 일	세 가지 빛깔로 그려진 그림을 보고 꽃에 향기가 없음을 알았던 것과 두꺼비가 우는 것을 듣고 적이 있는 곳을 짐작하여 물리쳤다.
제2 기이편	효소왕대의 죽지랑	죽지랑의 무리에 속해 있던 득오가 익선의 명에 따라 부역을 가게 되었고 죽지랑은 득오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가 여러 차례 익선에게 득오의 휴가를 청하였다.
	수로부인	수로부인은 철쭉을 갖기를 위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러나 정체를 노인이 수로부인의 말을 듣고 철쭉을 꺾어준다.
	처용랑과 망해사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훔쳐가 버렸으나 처용은 노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구분	삼국유사 설화	개요 정리
제4 탐상편	금관성의 파사석탑	수로왕은 서역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을 황후로 맞이한다.
	남백월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어느 여인이 절에서 머물고 가길 청하자 달달박박은 거절하였지만 노힐부득은 들어주어 먼저 성불하게 된다.
제6 신주편	혜통이 용을 항복시키다.	혜통이 놀다가 수달을 죽여 뼈를 버렸는데 뼈의 형체를 한 어미 수달은 살던 굴로 돌아가서 새끼를 돌본다. 이를 본 혜통은 중이 된다.
제7 감통편	선율이 다시 살아나다	선율은 시주받은 돈으로 육백반야경을 완성하려했으나 이루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염라왕이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보내주자 고뇌에 찬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명복을 빌어준다. 이에 감동한 사람들이 서로 도와 반야경을 완성시킨다.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	김현과 처녀의 모습을 한 호랑이가 서로 사랑하였는데 호랑이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김현의 승승장구를 바란다.

2. 연구 절차

1)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의 선정 기준 설정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을 연구하기 위해 유아교육 및 교육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기준 문항을 선정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2주에 걸쳐 e-mail을 통해 진행되었다. 델파이 조사를 위해 선정된 전문가 집단은 총 15명으로 분야별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전문가 집단의 분포와 수

소속	인원수	
	1차	2차
유아교육 또는 교육학 교수	4	4
교육학 석사 이상 연구원	6	6
학교 교사(사회교과 전공)	5	5
전체	15	15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 집단은 세계시민교육과 삼국유사에 관심이 있는 유아교육과 교수와 교육학 교수 4인, 석사 이상의 교육학 연구원 6인, 사회 교과 관련 학교 교사 5인으로 구성하였다.

2)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 선별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은 세계시민교육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학습 영역을 아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Batiste, 200; Brokings Institution, 2017; Morais and Ogden, 201; Oxfam, 2015; UNESCO, 2015a: 16)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인지영역, 사회·정서영역, 행동영역을 대분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중분류, 소분류 항목들도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 문항을 설정하였다.

첫째, UNESCO(2015)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사고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적인 내용에는 자국 및 타국 이해하는 것과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세계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 즉, 국가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각각의 요소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지영역의 첫 번째 중분류 항목은 문화적 다양성으로 설정하였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특징적인 문화라고 구별할 수 있는, 즉,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세계의 문화는 한 국가에 사는 개인의 특성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성, 인종, 민족, 사회계층, 장애, 종교, 언어, 국적, 지리적 지역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 내에서 볼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의 요소는 사회계층,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장애, 민족 정체성, 인종, 언어 등으로 서로 상호작용한다(이수진, 2019: 17)는 연구 결과에 따라 중분류 ‘문화적 다양성’의 소분류 항목을 성, 인종, 민족, 사회계층, 장애, 종교, 국적, 지리적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중분류 항목인 ‘인권’은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이다. UNESCO(2015)는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 가지는 권리들에 대해 아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또한 김우정(2019: 1)의 연구에서는 미래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인권에 대한 존중이 그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권’의 소분류 항목에 포함된 인간의 존엄성, 생명존중, 자유, 평등, 양심, 민주, 복지의 요소는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선언문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세계인권선언문 1조부터 30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와 ‘평등’의 단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평등’한 존재로서 ‘양심’을 가질 권리, 사회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권리와 기본적인 생존과 더불어 의료, 교육, 생활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제 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시민교육의 교육 목표 6가지 중 하나는 국경을 뛰어넘어 지구촌 구성원들이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세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목표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인류의 주요 문제 연구 해결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 권리 평등과 시민 자결권, 평화 유지와 국제적 안전보장, 국제관계, 군축,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난민, 해방운동, 발전, 경제성장, 사회 발전, 인구 문제, 문해, 보건, 질병, 기아, 삶의 질, 자원과 환경, 문화유산과 보소, 유엔 체제 역할 등이 있다.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세 번째 중분류 항목과 네 번째 중분류 항목은 세계시민이 지각해야 할 인류의 주요 문제로서 ‘평화’와 ‘환경’으로 설정하였다.

‘평화’의 소분류 항목은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내용에 포함된 요소를 정리하여 빈곤, 질병, 난민, 테러, 전쟁, 통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의 소분류 항목은 남상민(2010: 70)의 환경교육과 지속 발전 가능 교육에 관한 영역과 내용 분류에 따라 자연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의 다양성, 재해, 환경오염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세계시민이라면 공동 인류에 소속감을 가지고, 공유된 가치, 책무성, 공감, 연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같은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회·정서적 영역의 중분류 항목은 인류 공동이 지녀야 할 ‘보편적 가치’와 ‘태도’로 설정하였다.

UNESCO (2015; 한국판 해제본: 24)의 사회·정서적 영역에서의 ‘가치’는 사람의 전반적인 신념 체계에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며 이런 가치는 행동과 행위의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반면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할 정신적 준비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는 곧 태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Oxfam(2015a; 김정숙, 2018: 30)은 가치와 태도에는 정체성과 자부심 인식, 사회적 정의와 평등에 대한 헌신, 사람과 인권에 대한 존중, 다양성에 대한 가치 부여, 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헌신, 참여에의 헌신,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등이 있다고 했으며 월드비전(2015; 김정숙, 2018: 34)은 ‘가치와 태도’는 자아정체성과 자아 존중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한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 다양성 존중,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역할 의식, 책임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연구자는 김정숙(2018: 36)의 연구에서 제시된 역량기반 세계시민교육 영역 및 요소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가치’와 ‘태도’에 포함된 요소들 중 공통된 요소들을 정리·분류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설정된 ‘가치’의 소분류 항목은 인정, 존중, 관용, 인내, 정체감, 책임, 정의이며 ‘태도’의 소분류 항목은 헌신, 반성, 예의, 개방성, 이타주의, 수용이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에서 행동적 영역은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 실천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실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려면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술 즉, 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지구적 이슈와 문제에 대한 참여는 사회적 기술이 전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행동영역의 중분류 항목은 ‘사회적 기술’과 ‘참여’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기술’은 복잡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비판적·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타인들과 의사소통하고 범람하는 정보 중 가치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월드비전, 2015; 김은나, 2019: 30)고 하였다.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서 ‘사회적 기술’에 포함된 요소들을 살펴보면 Oxfam(2015: 5)는 기술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공감, 자기인식과 반성, 의사소통, 협력과 갈등의 해결,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 주지된 행동과 반성적 행동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김선미 외(2003: 76)은 사회적 기술의 한 하위 요소로 협상, 협동, 표현력, 토론, 네트워킹 등의 상호작용 능력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소분류 항목을 공감, 협력, 배려, 의사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으로 설정하였다.

황세영(2017)의 연구에서 ‘참여’는 빈곤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활동,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 행사, 국제구호 및 자선활동과 인권 증진 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Green(2012)의 연구에서 ‘참여’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삶에 참여하는 것이며 공동체는 지역적인 것에서부터 세계적인 것까지,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정치적인 것까지 다양하다고 하였다. 즉, 세계시민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의 연결을 인식하고 투표, 봉사, 지지, 정치

적 활동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세계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행동에는 ‘봉사’가 있고 경제적인 참여 행동에는 ‘기부’가 있으며 정치적인 참여 행동으로는 ‘선거’, ‘시민단체’, ‘정치’가 있다. 따라서 ‘참여’의 소분류 항목으로 기부, 봉사, 선거, 시민단체, 정치로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3가지의 각 영역에 제시한 요소를 취하여 예비 문항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예비문항 설정 후 연구자와 관련전문가 3인(유아교육과 교수 1인, 교육학과 교수 1인)이 협의하여 삼국유사 선정 기준으로 사용될 수 대분류 항목 인지, 사회·정서, 행동의 3문항과 중분류 항목 8문항, 소분류 항목 53문항 총 64개의 문항을 확정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3. 자료 분석

전문가 집단에게서 수집된 문항지의 답들은 SPSS 18.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선정 기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의 선정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는 총 2차까지 진행되었는데, UNESCO(2015)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추출된 문항 및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분류 항목별 영역	1차 평균	표준 편차
대분류 항목	1. 인지	3.69	.87
	2. 사회·정서	4.06	0.772
	3. 행동	4	0.632

구분	분류 항목별 영역	1차 평균	표준 편차		
중분류 항목	1. 인지	1) 문화의 다양성	3.81	1.047	
		2) 인권	3.5	1.265	
		3) 평화	3.81	1.167	
		4) 환경	3.75	1.125	
	2. 사회·정서	1) 보편적 가치	4.06	1.063	
		2) 태도	4.19	0.544	
	3. 행동	1) 사회적 기술	4.25	0.856	
		2) 참여	4.25	0.856	
	1. 인지	1) 문화적 다양성	(1) 성	3.69	1.078
			(2) 인종	3.56	1.315
			(3) 민족	4.25	0.577
			(4) 사회계층	4.19	0.655
(5) 장애			3.06	1.611	
(6) 종교			4.25	0.775	
(7) 언어			3.69	1.138	
(8) 국적			3.94	0.998	
(9) 지리적 지역			4.63	0.619	
2) 인권		(1) 인간의 존엄성	4.56	0.629	
		(2) 생명존중	4.38	0.719	
		(3) 자유	4.25	0.775	
		(4) 평등	4.19	1.167	
		(5) 양심	4.06	1.289	
		(6) 민주	3.94	1.436	
		(7) 복지	3.69	1.25	
3) 평화		(1) 빈곤	4.38	0.806	
		(2) 질병	4.25	0.775	
		(3) 난민	4.06	1.237	
		(4) 테러	3.75	1.238	
		(5) 전쟁	4.13	0.806	
		(6) 통일	4.31	0.793	
4) 환경		(1) 자연자원	3.94	1.181	
		(2) 에너지	3.75	1.238	
	(3) 기후변화	3.81	1.424		
	(4) 생물다양성	3.88	1.31		

구분	분류 항목별 영역	1차 평균	표준 편차	
	(5) 재해	3.75	1.125	
	(6) 환경오염	3.75	1.342	
2. 사회·정서	1) 보편적 가치	(1) 인정	3.94	0.998
		(2) 존중	4.44	0.629
		(3) 관용	4.31	0.793
		(4) 인내	4.25	1.065
		(5) 정체감	4.31	0.704
		(6) 책임	4.25	0.931
		(7) 정의	4.25	0.683
	2) 태도	(1) 헌신	4.25	0.931
		(2) 반성	4.19	0.981
		(3) 예의	4.5	0.632
		(4) 개방성	4.13	1.204
		(5) 이타주의	4.44	0.629
		(6) 수용	4.5	0.632
		3. 행동	1) 사회적 기술	(1) 공감
(2) 협력	4.31			0.704
(3) 배려	4.5			0.516
(4) 의사소통기술	4.31			0.704
(5) 비판적 사고력	4.13			0.806
(6) 창의적 사고력	4.19			1.109
2) 참여	(1) 기부		4.19	0.834
	(2) 봉사		4.44	0.814
	(3) 선거		3.94	1.389
	(4) 시민단체		3.81	1.328
	(5) 정치	4.06	1.34	

각 평가자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 4점 이상을 주었지만, 대분류 항목인 ‘인지’와 ‘인지’의 중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인권’, ‘평화’, ‘환경’과 소분류 요소에 해당하는 ‘성’, ‘인종’, ‘장애’, ‘언어’, ‘국적’의 요소와 사회·정서 영역의 중분류 항목인 ‘보편적 가치’에서 ‘인정’ 그리고 행동영역의 중분류 항목인 ‘참여’에서 ‘선거’, ‘시민단체’ 항목이 4점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이 중 대분류 ‘인지’는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내용 범주에 속하며 평균의 기준인 3.5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았다. ‘인지’ 항목에 해당하는 중분류, 소분류 항목들도 4점미만을 받은 항목들이 있지만 평균 3.5이상의 점수를 받았기에 제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지의 중분류 항목인 ‘환경’은 행동 영역으로 포함시키거나 삼국유사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로는 적절하지 않아 제외해도 되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외하였다. ‘문화의 다양성’에서 ‘장애’는 3.06으로 평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에 속하는 소분류 항목들은 국가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며 ‘인지’ 영역에 더 적합한 중분류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인권’은 명칭을 달리하거나 사회·정서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국가 체계’로 수정하였고 ‘인권’은 사회·정서영역으로 포함시켰으며 재구성한 항목들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만족시킨다는 전문가 3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분석범주의 의견을 확정 짓기 위한 2차 조사도 1차 조사와 동일하게 e-mail을 통해 진행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0.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분류 항목별 영역	1차 평균	표준 편차	
대분류 항목	1. 인지	3.69	.87	
	2. 사회·정서	4.06	0.772	
	3. 행동	4	0.632	
중분류 항목	1. 인지	1) 문화의 다양성	3.81	1.047
		2) 인권	3.5	1.265
		3) 평화	3.81	1.167
		4) 환경	3.75	1.125
	2. 사회·정서	1) 보편적 가치	4.06	1.063
		2) 태도	4.19	0.544
	3. 행동	1) 사회적 기술	4.25	0.856
		2) 참여	4.25	0.856

구분		분류 항목별 영역	1차 평균	표준 편차
1. 인지	1) 국가 체계	(1) 성	3.93	1.1
		(2) 인종	3.67	1.345
		(3) 민족	4.4	0.91
		(4) 사회계층	4.27	0.799
		(5) 종교	4.27	0.884
		(6) 언어	3.8	1.207
		(7) 국적	4.07	1.1
		(8) 지리적 지역	4.2	0.676
	2) 평화	(1) 빈곤	4.47	0.834
		(2) 질병	4	1.069
		(3) 난민	3.73	1.438
		(4) 테러	3.73	1.534
		(5) 전쟁	4.2	0.862
		(6) 통일	4.27	0.704
2. 사회·정서	1) 보편적 가치	(1) 인정	4.67	0.488
		(2) 존중	4.6	0.632
		(3) 관용	4.27	0.704
		(4) 인내	4.53	0.834
		(5) 정체감	4.27	1.033
		(6) 책임	4.33	0.9
		(7) 정의	4.47	0.834
	2) 태도	(1) 헌신	4.53	0.915
		(2) 반성	4.47	0.64
		(3) 예의	4.53	0.743
		(4) 개방성	3.73	1.438
		(5) 이타주의	4.27	0.961
		(6) 수용	4.47	0.64
	3) 인권	(1) 인간의 존엄성	4.07	1.223
(2) 생명존중		3.8	1.474	
(3) 자유		4	1.134	
(4) 평등		4.27	1.1	
(5) 양심		4.07	1.033	
(6) 민주		3.87	1.187	
(7) 복지		4.27	0.884	

구분	분류 항목별 영역	1차 평균	표준 편차	
3. 행동	1) 사회적 기술	(1) 공감	4.47	0.743
		(2) 협력	4.33	0.617
		(3) 배려	4.53	0.516
		(4) 의사소통기술	4.4	1.056
		(5) 비판적 사고력	4.07	1.387
		(6) 창의적 사고력	3.87	1.552
	2) 참여	(1) 기부	4.33	1.047
		(2) 봉사	4.47	0.743
		(3) 선거	3.93	1.486
		(4) 시민단체	3.93	1.438
(5) 정치		4.27	1.1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와 동일하게 ‘국가 체계’의 ‘성’, ‘인종’, ‘언어’ 항목과 ‘평화’의 ‘테러’ 그리고 ‘참여’의 ‘선거’와 ‘시민 단체’ 항목이 4점미만이었다. 그러나 1차 결과와는 달리 2차에서 4점미만의 점수를 받은 항목은 사회·정서 영역 ‘태도’의 ‘개방성’과 ‘인권’의 ‘생명 존중’ 그리고 행동 영역 ‘사회적 기술’의 ‘창의적 사고력’ 항목이 4점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1차와 2차 모두 4점미만의 점수를 받은 항목들은 최종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외하였다. ‘평화’의 ‘난민’ 항목 또한 삼국유사의 선정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외하였다. 사회·정서 영역 ‘보편적 가치’의 ‘존중’이 ‘인권’의 ‘인간의 존엄성’, ‘생명존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태도’의 ‘수용’ 또한 ‘개방성’의 의미와 중첩되며 ‘개방성’은 ‘태도’라기보다는 행동 영역에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간의 존엄성’, ‘생명존중’, ‘개방성’의 항목은 최종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참여의 ‘기부’ 항목은 ‘나눔’이라는 작은 의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나눔’으로 항목 명을 변경하였다. 최종 선정된 항목들을 전문가 5인(유아교육과 교수 1인, 가정교육과 교수 1인,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 1인, 유아교육과 강사 1인, 역사교과 교사 1인)에게 제시하였다. ‘참여’에서 ‘선거’, ‘시민 단체’의 항목을 제외한 만큼 ‘인권’에서 ‘민주’의 항목 또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최종적으로 선정하기에 적절

하다는 동의를 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1차,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항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최종 선정 기준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수
1. 인지 영역	1) 국가체계	민족	9항목
		사회계층	
		종교	
		국적	
		지리적 지역	
	2) 평화	빈곤	
		질병	
		전쟁	
		통일	
2. 사회·정서 영역	1) 보편적 가치	인정	16항목
		존중	
		관용	
		인내	
		정체감	
		책임	
		정의	
		수용	
	2) 태도	예의	
		반성	
		헌신	
		이타주의	
	3) 인권	자유	
		평등	
		양심	
		복지	
3. 행동 영역	1) 사회적 기술	공감	8항목
		배려	
		협력	
		의사소통기술	
		비판적 사고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수
	2) 참여	나눔 봉사 정치	
			총 33항목

이상과 같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은 1차에 서는 총 64문항이었으나, 1차와 2차의 델파이조사에서 31항목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는 인지영역 9항목, 사회·정서영역 16항목, 행동영역 8항목으로 총 33항목이 선정되 었다.

2. 선정 기준에 따른 삼국유사 분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 대상인 <표 1>의 삼국유사 를 분류하기 위해, 연구자를 비롯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 문항 설정에 참여한 전문가 3인(유아교육과 교수 1인, 유아교육기관장 1인, 역사교과 교사 1 인) 총 4인이 선정 기준 항목을 가지고 삼국유사 문헌과 함께 토의 과정을 거쳐, 4인 의 의견 중 3인 이상 일치한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였다. 1차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 던 항목 외에, 2차로 또 다른 항목 중 어떠한 항목에 해당되는지 표시하도록 하여 1차 와 동일하게 4인의 의견 중 3인 이상일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였다. 삼국유사의 해 당 항목 칸에 주요 요소를 적고 1차 선정일 경우 *하나, 2차 선정일 경우 *두 개로 구 분하였다. 선정 기준에 따라 분류된 삼국유사는 다음과 같이 <표 6>으로 정리하였다.

<표 6>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에 따른 삼국유사 분류

번호	구분	국가 체계	평화	보편적 가치	태도	인권	사회적 기술	참여
1	고조선			인내**		평등*		
2	신라시조 혁거세왕				수용*			정치**
3	도화녀와 비형량			책임*	수용**			
4	선덕왕이 미리 알았던 세 가지 일		전쟁*				창의적 사고력*	

번호	구분	국가 체계	평화	보편적 가치	태도	인권	사회적 기술	참여
5	효소왕대의 죽지랑	사회 계층*				복지**		
6	수로부인			존중**			공감*	
7	처용랑과 망해사			관용**	반성*			
8	금관성의 파사석탑	국적*			수용**			
9	남백월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이타 주의**		공감*	
10	혜통이 용을 항복시키다.			존중*	반성**			
11	선율이 다시 살아나다	종교*					협력**	
12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			헌신*	이타 주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 문항에 따라 12편의 삼국유사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체계’에는 ‘효소왕대의 죽지랑’과 ‘금관성의 파사석탑’, ‘선율이 다시 살아나다.’가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1차에서 선정되었다.

‘평화’에는 ‘선덕왕이 미리 알았던 세 가지 일’이 1차에서 선정되었다.

‘보편적 가치’에서는 ‘도화녀와 비형랑’, ‘혜통이 용을 항복시키다’,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가 1차에서 선정되었고 ‘고조선’, ‘수로부인’, ‘처용랑과 망해사’는 2차에서 선정되었다.

‘태도’에서는 ‘처용랑과 망해사’와 ‘신라시조 혁거세왕’은 1차에서 ‘도화녀와 비형랑’, ‘금관성의 파사석탑’, ‘남백월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혜통이 용을 항복시키다’,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는 2차에서 선정되었다.

‘인권’에서는 ‘고조선’과 ‘효소왕대의 죽지랑’이 각각 1차와 2차에서 선정되었다.

‘사회적 기술’에서는 ‘선덕여왕이 미리 알았던 세 가지 일’, ‘수로부인’, ‘남백월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1차에서 선정되었고 ‘선율이 다시 살아나다.’는 2차에서 선정되었다.

‘참여’에는 ‘신라시조 혁거세왕’이 2차에서 선정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유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삼국유사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 유아교육 및 교육학, 역사학 관련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UNESCO가 제시한 3가지 교육 영역별로 최종 선정된 문항의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영역은 9항목으로 중분류에는 국가 체계와 평화가 해당되며 국가 체계의 소분류 요소는 민족, 사회계층, 종교, 국적, 지리적 지역이다. 평화의 소분류 요소는 빈곤, 질병, 전쟁, 통일이다.

둘째, 사회·정서영역은 16항목으로 중분류에는 보편적 가치, 태도 그리고 인권이 해당되며 보편적 가치의 소분류 요소는 인정, 존중, 관용, 인내, 정체감, 책임, 정의이고 태도의 소분류 요소는 수용, 예의, 반성, 헌신, 이타주의이며 인권의 소분류 요소는 자유, 평등, 양심, 복지이다.

셋째, 행동 영역은 8항목으로 중분류에 사회적 기술과 참여를 포함하고 사회적 기술의 소분류 요소는 공감, 배려, 협력, 의사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력이고 참여의 소분류 요소는 나눔, 봉사, 정치이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의 선정 기준은 이상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 총 33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항목은 삼국유사 선정 기준 항목 설정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3인과 연구자가 함께, 연구 대상인 삼국유사 12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삼국유사 12편을 대상으로 하여 각 영역별로 2차에 걸쳐 선정하였는데, 1, 2차 결과 모두를 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정서영역 ‘태도’ 항목이 7가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정서영역 ‘보편적 가치’ 항목이 6가지, 행동 영역 ‘사회적 기술’ 항목 4가지, 인지 영역 ‘국가 체계’ 3가지, 사회·정서영역 ‘인권’ 2가지, 인지 영역 ‘평화’, 행동 영역 ‘참여’ 각각 1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삼국유사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 대상 삼국유사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삼국유사는 한 가지 교육 영역 항목에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특정 설화의 경우 세 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고조선’의 경우 인내, 평등, 정치에 모두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1차 분류에서는 평등, 2차 분류에서는 인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고조선’ 이야기가 ‘정치’ 항목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분류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관점 혹은 의견이 인내와 평등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렸기 때문이며 설화는 이야기이고 이야기는 읽는 이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분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여러 가지 지식, 기술, 가치·태도를 토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 모습이 삼국유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라 여겨진다. 삼국유사 안에는 단군 신화를 비롯한 수많은 신화, 전설과 같은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특정한 종교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앙 사상, 민속, 일화 등 다방면에 걸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풍부한 자료로서 이 이야기를 접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있으나 교육 분야에서는 교과서에 삼국유사의 일부를 수록할 뿐 적절한 교육 매체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삼국유사의 설화는 민족의 역사·신앙·관습·세계관 및 꿈과 낭만·웃음과 재치, 또는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기(최운식, 1991)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도 삼국유사에는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보편적 가치와 태도,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과 참여 방법 등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습자가 세계시민의식을 갖추고 행동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가 교육현장에서 활발히 실행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유사는 역사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유아뿐만 아니라 유아 교사들에게도 삼국유사 속 다양한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요소가 많음을 알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이야기로 구성된 책뿐만 아니라 연령과 유아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로 변형된 삼국유사를 유아 교사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 5세 누리과정 해설서.
- 교육과학기술부. 2015. 인성 교육 강화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김경은·이나라. 2012. “사회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세계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 함양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 연구』 16(1): 231-256.
- 김기정·권은주. 2018. 삼국유사 설화의 유아 인지 놀이 연구. 『신라문화』 51: 255-272.
- 김선미·남경희. 2003.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우정. 2019. 지속가능 인성함양을 위한 인권, 문화다양성 통합 교육.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훈. 2018. “협동학습을 적용한 세계시민교육 방안 탐색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13(1): 105-145.
- 김정선. 2018. 『삼국유사』 설화의 놀이유형과 유아 놀이 의미 탐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선·권은주. 2018. 삼국유사 설화를 활용한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다문화교육연구』 11(2): 85-103.
- 김정선·권은주. 2017. 삼국유사를 활용한 유아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8(12): 257-264.
- 김정숙. 2018. 유아교사의 세계시민교육역량 척도 개발.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상민. 2010. “일본의 환경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실천적 과제”. 『한국환경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69-73.
- 박은혜·신은숙. 2012. “2011 국제표준교육분류 0단계(ISCED 0)에 기초한 누리과정의 유아교육제도로서의 의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6(2).
- 신창호·은필관. 2011. “삼국유사에 수록된 시가와 배경설화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학』 33(2): 75-95.

- 유연옥·박인숙. 2014.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세계시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4).
- 유향선. 2013.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 및 인종편견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 월드비전. 2015.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성 연구. 한국 월드비전.
- 이수진. 2019.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예일. 2019. 역사이야기를 통한 카툰미디어 미술교육 방법 연구: 삼국유사를 활용한 고등학교 창의융합수업을 바탕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동일. 2017. 신문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측정 연구 -초등학교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지훈. 1994. 단군신화연구. 온누리.
- 최민정. 2010. 삼국유사 소재 설화 선택 및 교육 양상에 대한 연구 -아동문학 교육의 관점에서-.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식. 1991.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 허영선. 2020. 중학교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세영. 2017.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17-R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ollins, M. 2012. 아동을 위한 세계시민교육(박명순·김현경 역). 학지사.
- Green, M. F. 2012. Global citizenship: What are we talking about and why does it matter. Trends and Insights for International Education Leaders, 1-4.
- Morais, D. B. and Ogden, A. C. 2011. Initi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lobal citizenship scale.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5(5): 445-466.
- Oxfam. 2015.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UK: Oxfam.
- UNESCO. 2015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Abstract

A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Folktales 『Samgukyusa』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ark, Keun-Young · Kweon, Dae-Weon

Various studies on education methods are being conducted as education becomes more important to strengthen awareness and competence as a global citizen. The content of the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is regarded as a fundamental repository of cultural heritage and covers various areas such as, geography, literature, religion, language, folklore, ideas, art, and archaeology. It is possible to reconstruct creatively according to the method of utilization, and thus meet the different needs of learners and fully achieve the learning goals pursued by global civic educ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more efficient in world citizen education, and to study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Three Kingdoms for world citizen education. In order to set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for global civic education, the researcher examined the preceding research and literature, organized the items, and set up the preliminary questions.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for 15 expert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pedagogy and history to select the final questions and to classify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ccording to the selected items. We could see that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contained all the items, including knowledge, universal values and attitudes, desirable social skills, and methods of participation.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use of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in world civic education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earners to have a sense of world citizenship and action.

Keywords: Samguk yusa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논문투고일 : 2020. 8. 20, 논문심사일 : 2020. 9. 8, 심사완료일 : 2020. 9. 27]